



전남도, ‘바이오 신산업 육성 전략’ 포럼

전라남도는 9일 도청에서 박세필 제주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전남포럼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첨단 바이오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사진)

이날 포럼은 전남도가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전남 바이오 신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도청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세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전남은 일찍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해,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첨단 바이오 기술력과 선도적인 연계사업을 기반으로 국가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유치한다면, 단순한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세계 바이오 신약 개발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는 오는11일까지를 ‘환경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모든 역사에서 대국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철도가 탄소중립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상 속 친환경 생활 실천의 시작이 열차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환경주간 동안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역사별 환경정화 활동, 철도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생활수칙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5일에는 광주역에서 광주본부 직원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며 쾌적한 역사 환경 조성에 힘썼다.

김영진 광주본부장은 “광주본부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며, 더 깨끗하고 쾌적한 철도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광주CBS 신임 대표에 조기선 전남CBS 대표 취임

광주CBS 신임 대표에 조기선(57·사진) 전남CBS 대표가 9일 취임했다.

조 신임 대표는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미주리주립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연구수했다.

조 대표는 1993년 CBS 공채 16기로 입사해 광주CBS 기자를 거쳐 CBS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남CBS 보도제작국장, CBS 기획조정실 홍보부장, 광주CBS 보도제작국장, 전남CBS 대표 등을 역임했다.

조 대표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방송대상,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보도상,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6·4 지방선거’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 A to z’ 등이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시, 상반기 에너지위원회 개최

광주광역시시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민관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에너지위원회는 이날 △2025년 에너지분야 주요 추진 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 △2025년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시행계획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향 등 4개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자문을 진행했다. 특히 도심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과 효과적인 공공 유희부지 태양광 보급,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보급, 재생에너지100(RE100) 기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장기 지역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제6차 지역 에너지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자문도 병행했다. 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 공급 전망,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등이 담길 예정이다. 광주시는 에너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

전라남도는 9일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하며 환경 보호 실천을 생활화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해 임지락·박종원 전남도의원,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철원 담양군수, 담양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환경 공무원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환경의 날 기념 메시지를 전달한 데 이어, 본 행사에서는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2025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실천하자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날 유공자 표창에서는 평소 환경보전에 기여한 환경단체 회원,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원, 근로자, 공무원 등 9명이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도내 각 시군별로 다양한 환경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문화재단, 배동환 신임 사무처장 취임



광주문화재단 제6대 사무처장에 배동환(61·사진) 신임 사무처장이 임명돼 9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6월 9일부터 2027년 6월 8일까지 2년간이다.

배동환 사무처장은 음악예술과 교육, 지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광주문화재단의 행정과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 처장은 목포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호남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1984년부터 2003년까지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연주자로 활동하며 예술 현장 경험을 쌓았고, 이후 초당대학교, 명신대학교, 성화대학교 등에서 겸임·전임 강사로 활동, 음악교육과 지역 예술 인재 양성에 헌신해왔다. 박찬 기자



광주교대, 전라·제주권 늘봄학교 강사 연수 성과보고회

광주교육대학교는 전라·제주권 늘봄학교 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1차년도 성과보고회를 지난 4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날 보고회에는 광주교대 허승준 총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관계자, 책임교수, 자문위원, 강사 등이 참석해 사업 첫해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광주교대 박선주 교수의 연수 성과 발표로 시작됐으며, 각 지역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품암초등학교 하주길 교감이 실습 위주로 창의 인형극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를 공유했

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교육대학교 정옥희 교수가 지역 연계형 미술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습 연계 사례를 발표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조성호 논술 강사가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기반 독서·논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성과보고에 이어 책임교수, 자문위원, 강사, 집필진, 연수생 등이 참여한 운영 토의가 진행됐으며, 내년도 과정 구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을 넘어서는 학생 전인교육의 핵심 모델”이라며 “질 높은 강사 양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약속드리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신인 걸그룹 키라스, 신나는 EDM ‘질러’ 발표

신인 걸그룹 키라스(KIIRAS·사진)가 9일 낮 12시 신곡 ‘질러’(ZILLER!)를 발표했다고 소속사 린브랜딩이 밝혔다.

‘질러’는 파워풀하고 신나는 분위기가 돋보이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베이스의 틸팝이다.

멤버들은 ‘질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면에 잠재된 찌릿찌릿한 여러 감정을 속 시원히 내지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키라스는 링링, 쿠루미, 하린, 카일리, 도연, 로아로 구성된 6인조다. 이들



은 지난달 29일 컨트리 분위기가 인상적인 팝 장르 ‘킬 마 보스’(KILL MA BO\$\$\$)로 데뷔했다.

키라스는 이날 ‘킬마보스’와 ‘질러’가 수록된 실물 음반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속도’

국내서 신곡 뮤비 촬영

걸그룹 블랙핑크(사진)가 신곡 뮤직비디오촬영에 돌입하며 완전체 컴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지난 6일부터 국내 모처에서 해외 유명 감독과 함께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YG는 “블랙핑크의 정체성과 음악적 색채를 총집약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뮤직비디오가 탄생할 것”이라며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

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위상에 걸맞은 특별한 협업인 만큼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블랙핑크의 신곡 소식은 게임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더 걸스’(THE GIRLS)를 제외하면 지난 2022년 9월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블랙핑크는 오는 7월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파리, 런던 등 총 16개 도시에서 31회에 걸쳐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연다. 연합뉴스

